

주의 공현 대축일

제 1 독서 : 이사 60, 1-6
제 2 독서 : 에페 3, 2-3a, 5-6
복 음 : 마태 2, 1-12

순정이

“동방박사들은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 11).

강론

“신앙의 눈”

범영배 신부/소룡동 천주교회

오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보이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사가 예언자의 말씀같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비좁고 악취나는 마구간입니다. 허영에 들떠 있는 인간적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동방박사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걸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쳐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수히 많은 별 중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보았으며, 어려운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과 이웃에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초라하고 작은데서 노력하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기적이란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뵈기 위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으나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할 일이 있었겠지만 주님을 향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을 빼앗겨 주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았던 신앙의 눈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신의 일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소리

“빠져 죽어야”

민주주의의 축제로 삼자던 제 14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어느 한 후보와 정당에게는 기쁨의 축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갈망하던 과반수(58.6%)의 유권자들에게는 ‘한겨레 그림판’의 만평(12월 22일자)처럼,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만양 허전하기만 했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 김영삼 씨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마찰은 과거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당선 성명을 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서 “흑색 선전도 있었고 관권 물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뭔가 착오로 생긴 것으로 대세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가 끝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이나 과거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선거 막바지에 보았던 ‘인공기’까지 등장한 소위 색깔론이라 불리는 흑색 선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는 ‘영도다리 배수진’ 이야기다. 설사 이것들이 김영삼 씨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직한 정치인임을 등록상표마냥 즐겨 쓴 그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있는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결코 유감 운운하는 말로 어물쩍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새한국의 건설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에 철저하게 빠져 죽은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남으로서만 가능하다. [문]

순정이 산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세계 평화의 날(1993년 1월 1일) 담화문

“평화를 바라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오”

1. 선의를 지닌 사람이면 그 누가 평화를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평화는 모두가 추구하고 수호하여야 할 드높은 가치의 하나로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 이념권 사이에서 파멸에 이르는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극심한 지역 분쟁이 세계 도처를 계속 휩쓸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비뚤어진 전쟁의 논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강력한 평화 호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또 평화를 극심하게 위협하는 또다른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개인은 물론 참으로 모든 민족들이 오늘날 극도의 빈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평화’, 새해 첫날, 저는 가난과 평화라는 이 두 실재 사이의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들을 함께 성찰하여 보자고 모든 이를 초대하는 바입니다.

2. 저는 여기서 1981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말씀드렸던 바를 거듭 상기시켜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는 “평화를 위하여 자유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진정한 평화 건설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다른 개인과 집단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민족과 국가의 자유 존중은 평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입니다. 국가나 민족의 주권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민족과 문화 전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평화의 조건은 모든 나라와 각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침해하는 온갖 주장과 의도를 거부한다는 의식적이고도 공적인 서약을 그 전제로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민족지상주의나 문화지상주의의 모든 교조를 거부하여야 합니다”(9항).

3. 극도의 빈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를테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지닌 발전의 권리는 선진국들에게 그들을 원조하여야 할 명백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지상의 넉넉한 재화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쓰고 남은 것만을 주어서는 충분치 않다”(사목현장 69항). 이러한 까닭에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게 된 오늘의 세계가 요구하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극도의 빈곤 상황을 용인한다는 것은 폭력과 분쟁의 위협에 한층 더 노출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따라서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한 문제들을 간략하게나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외채(外債)문제가 있습니다. 국제 공동체와 여러 나라 정부와 금융 기관들의 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채는 일부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회의 빈곤 계층에게는 계속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외채문제를 재검토하고 마땅히 그 해결책의 모색에 우선적인 역점을 두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또다른 심각한 문제는 마약입니다. 개탄스럽고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는 마약의 연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마약 밀매상들의 압력 때문에 마약 생산을 위한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초 재배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첫번째 일은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의 심각한 경제적 곤경 상황에서 파생되는 또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부유한 나라를 찾아가는 대량 이민을 조장하고 있으며 거기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긴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이민의 흐름이 비롯되는 가난한 나라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시켜 그 원인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곤은 평화에 대한 위협,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킴으로써 생명의 가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사회의 평화로운 발전 바로 그 핵심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최근년에 들어 우리는 거의 모든 대륙에서 극히 야만적이고도 극렬한 국지전과 내전들을 목격하여 왔습니다. 인종과 부족 그리고 민족적 폭력은 인간생활을 파괴하고, 이전에는 평화로이 함께 살던 공동체들을 분열시키고, 그 상처 위에 격동과 증오심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저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층 더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난민들의 미래는 전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관대함에, 가난하다 해도 난민들보다는 그대도 덜 가난한 그 사람들의 도량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으로 야기된 저 처참하고도 당혹스러운 광경이 세계의 여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도 매체를 통하여 특히 최근에 전해진 저 비참한 모습들이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 모든 개인과 사회와 국가들에 대한 하나의 효과적인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그 비참한 광경들이 돈은 결코 전쟁과 파괴와 살인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오로지 인간 존엄의 수호와 인간생활의 진보를 위하여 그리고 참으로 자유를

활 티 생 수
전화번호 변경되었습니다.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전주영업소 (0652)86-0419

MC² 엠·씨 스퀘어
액정비전·OHP·스크린
어학학습기(타터워콤)·휴대폰
김 인 수(요셉)
한진고속 옆 기린상가 내
☎ 251-1873~4

강 호 기 업
특수 콘테이너 하우스,
조립식 건축,
주문 제작, 특수 내장 시설
강 성 옥(요한)
덕진구 여의동
☎ 212-4909

노 령 기 획
신용조합 행사용품, 각종 단체 행사 기념품, 각종 개업 답례품 및 판촉물 김 배 근(스테파노)
월드컵 사거리 ↔ 다가동 파출소
☎ (0652)82-6224
FAX(0652)85-6224

중국 선교 50년 만에 귀국

“그때 임 신부님은 유치장에서 수많은 고문과 갖은 매와 고통, 수염, 머리카락마저 다 뽑혔고, 몸은 불덩이같이 죽는 줄 알았어요.”

1969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립일에 임 신부님은 석방되었고, 그때부터 신부님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노동(농사, 돌 깎는 일)을 하며 열심히 전교하셨다.

1980년 73세의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흑룡강성, 각현, 목단강, 하오강이, 이춘, 금마 등을 두루 다니시며 전교하셨다. 그러다가 1983년 12월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또다시 6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그러나 임 신부님께서도 심장병으로 고생을 해야만 했고, 이때 신부님은 심장병 치료차 하얼빈에 갔을 때(1983년?) 감시를 피해 지하교회로 숨어 신자들을 돌보게 되었고, 신부님은 교우들의 도움으로 ‘향방’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후 1985년 하얼빈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새로 입교한 박태수 부부의 도움으로 1985년 6월 25일 금경축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으로부터 이제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시니 귀국할 것을 편지로 권의했으나 신부님은 중국 대륙의 한인신자들을 버리지

못하시겠다며 청을 거절하시고 그해 1985년 8월 15일부터 ‘길림성 서란’에서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 사목활동을 해오셨다.

그동안 박정일 주교님과 북방 선교 담당 김상진(베네딕도수도회) 신부님의 노력으로 신부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92년도에 교구에서는 신부님의 귀환을 적극 서두르게 되었으며 지난 '92년 2월 13일에는 총대리 유장훈 신부님과 양경배 신부님, 김병엽 신부님이 중국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92년 12월 29일 신부님은 우리 곁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어제 중앙 성당에서는 주교님을 비롯 교구의 사제들과 수녀님, 신자들이 한데 모여 신부님을 뜨겁게 환영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까? 그러나 신부님은 노환,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 한마디도 못하신다. 건강을 회복하시면 필담으로라도 신부님의 거룩한 삶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아온 신부님의 거룩함이 더욱 빛나길 기원하며 친누이동생 임순이(세군다·74세) 할머니와 매제 김두철(방지거·72세) 할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일부를 소개한다.

“나는 지금까지는 살아 있으나 서산에 걸려 있는 해와 같아 저승으로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 지금은 눈도 많이 어두워졌고, 귀가 딱 어두워졌으며 혈압 관계로 혀가 굳어져서 발음이 잘되지 않으며 또 목이 잠겨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네. 차를 타는 것은 별일 없지만 도보로는 5리도 걸어갈 수 없게 되었으니 사는 것도 큰 고생이라는 것을 이제야 절실히 느끼게 되었구려. 이것이 마지막 편지일 것 같네.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주의 충실한 자녀가 되게 두 부부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88년 3월 19일
바 오 로



사제서품 50주년을 맞이하여

문규현(바오로) 신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탄 전날, 그러니까 24일 오후 5시경 석방 소식을 듣고 맨 먼저 달려간 분은 문규현 신부의 누나인 문 수녀와 형 문정현 신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경험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던가!

“어이, 나왔다는 연락받고 어떻게 왔는지 몰라. 집안 잔치네에...”

평소 표현이 별로 없으시고 강인하기로 소문난 어머니 장순례(80세)여사! 아들 형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눈물로 보냈을까? 날씨만 좀 추워도 아들 생각 때문에 몰래 울으시곤 했다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본다.

24일 5시 30분경 문규현 신부 석방 소식을 들은 주교님은 어떠했을까? “주교님, 문 신부님이 석방됐대요.” “응! 언제? 몇 시쯤 도착할까?” 떨리는 목소리로 어쩔 줄 모르시더니 공주 중동 성당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문 신부! 그래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 예수님께서 큰 선물을 보내셨구만. 빨리 와서 성탄 자정미사 같이 지내자구.”

같은 시간에 여기저기 보도기관(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눈코 뜰새없이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주교님과 신부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은 교구청에 속속 모여들어 문 신부에 대한 담소를 나누며 애타게 신부님의 도착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9시 30분경 도착하리라는 연락을 받고 9시경부터 주교님을 비롯 신부님들과 신자들은 가톨릭센터 정문에 도열하고 있었고, 20여명의 기자들은 복적대기 시작했다.

9시 40분경 드디어 문 신부가 도착하자 문 신부와 주교님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상기된 표정으로 서로 뜨거운 포옹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과 수녀, 신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주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선 성당에 가지.” 성당에서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교구청 휴게실에서 조우의 기쁨을 나누었다.

문 신부는 몰려든 취재진들이 석방 소감을 묻자 “주님 오신 날 주교님을 모시고 성탄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먼저 주교님을 비롯, 동료 신부, 신자들에게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석방되던 날!



도 쇠창살 뒤에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동지들을 뒤로 하고 우리만 나와 마음이 아픉니다. 특히 문익환 목사, 유인호 씨 서경원 의원..."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분단의 벽을 넘어 임 양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제로서 영광이었고, 북한 형제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제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이번 특별 가석방은 5공 6공 비리 인물들을 석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의 틀 러리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을 배반한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아픈 역사 속에서 온몸을 바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교도소에서는 "독서와 묵상, 기도에 정진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주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밤 12시 아기 예수 탄생을 경축하는 성탄미사에 문 신부도 함께했고 2,000여명 신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간단한 환영식과 소개가 있었다. 주교님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성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두 분 신부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 오는 29일 귀국하시는 임복만(바오로) 신부인데 신부님은 50년 동안 중국에서 사목하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미사를 지내는 문규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은 3년 4개월 동안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감옥살이 하시다가 오늘 석방되었고 문 신부님이야말로 지금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체험하고 계십니다."라고 소개하자 신부님은 "주교님과 신부님,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역사에 의해 외면당해왔던 주님을 생각하며, 구유의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만감이 교차 되고 밤은 깊어만 갔다.

임복만(바오로) 신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50년 동안 중국 만주지방에서 목자 잃은 양들을 위해 십수년간 감옥생활을 하며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목하셨던 임복만(바오로) 신부님이 지난 92년 12월 29일 불편한 몸으로 (노환, 중풍) 귀국하셨다. 건강하셨을 때는 양떼를 두고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느냐며 한사코 귀국을 거절하시더니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려운 신자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귀국을 서두른 것이다. 신부님께서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92년 2월(12일-23일)에 임 신부님을 뵙고 온 유장훈 신부님과 어렵פות이 기억해내는 오기순 신부님, 그리고 3남 1녀 중 유일한 생존자인 누이동생 임순이(세군다·74세)의 증언과 '89년 5월 동북선족교우 대표 김요안나의 기록을 토대로 정리해본다.

임복만(바오로) 신부, 그는 누구인가?

1910년생으로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가 고향인 임신부님은 13세 때 부모 곁을 떠나 대구신학교에 입학, 1935년에 사제로 서품 받으셨다. 사제가 된 후 나바위, 군산 둔용동 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하시다가 1942년 3월에 만주로 파견되어 '흑룡강성 해북진' 섬목 성당에서 500여명의 한인신자들을 돌보며 열심히 전교하셨다. 당시 조국은 일제하에 있었고 많은 애국지사들은 중국으로 망명을 갔고,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만주로 만주로 이주하던 시대였다.

1943년 중국은 광복을 맞이했고 당시 만주국 중심 교구인 장춘교구에선 고 주교님께서 교회 일을 돌보셨는데, 그곳엔 한국인 김선영 신부님께서 사목을 하고 계셨고, 양 신부님이 새로이 서품 받으셨다. 그래서 만주 부근에서는 임 신부님을 비롯 3분의 한국 신부님이 '길림, 해북진' 등지에서 사목을 하고 계셨다.

1945년 조국의 해방을 맞아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신부님은 목자 잃은 양떼를 위해 귀국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1947년 중국에서는 일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는데 당시 해북진에서 사목하시던 임 신부님은 투쟁을 하시다가 1949년 하얼빈으로 쫓기어 그곳에서 사목을 하셨다.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

중국이 공산화되자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일었던 3자 혁신훈동(자치, 자정, 자립)이 교회에도 미치게 되었고, 급기야는 중국은 공산당 영도하에 애국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쫓아내며 교황청과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

임 신부님은 교회 탄압 정책에 반대했고, 애국교회 조직에 참석치 않는다는 죄목으로 8년 동안 고된 노동 속에서 감옥생활을 해야만 했다.

1962년 석방되어 '빈천'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1968년 중국 문화 대혁명 후반기에 또다시 투옥, '향방'이라는 곳에서 감옥생활을 했고, 이때 신부님이 당한 고통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며 김요안나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한다.

고 조화로운 열린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5. 오늘날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사람들은 물질 재화의 소유를 위한 광란의 경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소비 사회는 빈부의 격차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무절제한 안일의 추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도록 눈이 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신적·경제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상 재화의 무절제한 소비를 저지하고 인위적인 욕구의 창출을 억제하는 것이 절대 긴요한 일입니다. 절제와 검소가 우리 일상생활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극소수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은 활용 가능한 자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부유의 공정 분배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와 더불어 이러한 수요의 감축이 빈곤을 완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복음적 가난은 평화의 원천이 됩니다. 그 가난을 통하여 한 사람이 하느님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빈의 상태 안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의 삶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절대적 의존을 증거하고 있으며, 거기서 물질 재화는 본래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시며 하느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루가 6,20 참조). 그분은 부자들에게 부요의 율가미가 하느님 말씀을 질식시켜버린다는 것(마태 13,22 참조)을,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마르 10,25 참조)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은 그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규범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실천하는 사랑을 두고 아무런 차별도 없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부유한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가진 것을 서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빕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 구 소 식

1. 교구청 사무식: 1월4일(월)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2.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 1월10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대상-북전주·임순남·무진장.
3. 초등부 복사단 교육: 1월6일(수) 북전주·김제·정읍지구, 7일(목) 남전주·군옥지구, 8일(금) 이리·임순남·무진장지구, 오전9시 가톨릭센터.
4. 중등교육자회 연수 및 정기 총회: 1월10일 오전10시-오후4시 가톨릭센터, 강사-이병호 주교, 회비-5,000원(중식 제공), 교구 내 중등교육자 전원 참석바람.
5. 예비 신학생 모임: 1월10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6. 남성 43차 꾸르실료: 1월7일-10일 천호 피정의 집.
7. 빈첸시오회 정기 총회: 1월9일(토) 오후2시 가톨릭센터.
8. 푸른군대 피정: 1월7일(목) 오전11시 덕진 성당.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요리를 할 때엔 작은 조리기구를

어떤 요리를 할 때든 가능한 한 작은 조리기구를 사용하십시오. 알맞은 양을 조리하여 열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음식찌꺼기도 줄이고, 씻을 때 물도 절약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요심이 (1013) 김병오



사무원 모집

- 봉사적이고 성실한 여성
- 구비서류: 이력서 1통
영세증명서 1통
 - 접수마감: 1월17일까지
 - 문의 전화: 86-3455
천주교 복자 교회

중등교육자회 연수 및 정기 총회

- 일시: 1.10.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 가톨릭센터
 - 강사: 이병호 주교
 - 회비: 5,000원(중식 제공)
- * 교구 내 중등교육자 많은 참석바람.

돈보스군 직업 훈련원생 모집

- 직종: 기계과(선반 및 기계조립)
- 대상: 고졸 및 중졸
- 연령: 만16세-23세
(군필 및 면제자)
- 교육기관: 1년
- 원서교부 및 접수: 92.12.8-93.2
- 연락처: (02) 833-4010

성공적인 삶의 비결

- 1월7일(목) 오후2시와 7시(2회)
 -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소
 - 연사: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 *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람.

백합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연주복 맞춤·대여
* 신자분 환영합니다.

김명옥(울리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17-3
☎ (0652)84-4662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싸롱

전 광 원 (마르코)

김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번-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양재·한복·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인드레아)

동부시정암·민정당시암

☎ 86-2715

* 냉난방 완비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주의 공헌 대축일.

※ 93년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축복을 빕니다.

1. 사목회상임: 1일 저녁미사 후.
2. 성시간: 7일 저녁미사 후.
3. 초등부 복사단 교육: 7일 전9시, 가톨릭센터.
4. 모임: ①울뜨레야(오늘 장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5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회장(7일 전10시30)
④장우회(10일 장엄미사 후)
5. 금주침소: 인후11, 동진1반.
차주침소: 동진2반, 남노1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교무금 신입 안하신분은 속히 신청바랍니다.
2. 92년 교무금 미납되신 분 완납바랍니다.
3. 회합: ①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②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③구역분과회-5일 오전10시 ④울뜨레야-5일 저녁미사 후 ⑤
자모회-7일 오전10시 ⑥성체강복-7일 저녁미사 후 ⑦여성분
과회-9일 오전10시 ⑧요새회-10일 공식미사 후 ⑨푸리아-10
일 오후2시 ⑩청년회-10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해설-황만규, 독서-황길평씨 부부.
봉헌-박상기씨 가족.
차주전례: 해설-최육남, 독서-박상기씨 부부.
봉헌-정동민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욱

※ 오늘은 주의 공헌 대축일: 우리 자신의 삶을 아기 예수님께 온
전히 봉헌합니다.

※ '93교구장 사목교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93 교무금 신입합니다.
2. 푸리아: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임원 개편: 회장-최상운
(마태오) 부회장-이명수(사도요한) 총무-양대환(요셉) 수고
하시겠습니까. 4. 감사: 성탄절 행사에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5. 성서읽기: 시편61편-70편. 6. 금주침소: 신비로운 장미Pr.
7. 금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정광섭 ②송정자, 봉헌-
김종석, 장만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김봉길
②유영래, 봉헌-김병열, 김단오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주의 공헌 대축일!

1. 회의: ①반장회-1월3일(오늘)공식미사 후 ②푸리아-1월3일
(오늘)오후2시 ③사목회-1월6일(수)7시30분 ④자모회-1월6
일(수)오전10시30분 ⑤프란치스코3회-다음주일 오후2시.
2. 모임: ①울뜨레야-1월13일(수)오후8시.
3. 일일: ①설날 합동 위령미사 예불: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조
상님들을 위해 정성어린 봉헌바람)
②93년도 교무금 미신입자 신입바람.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새하늘과 새땅!

대화의 가정, 사랑하는 공동체!

1. M.B.W 연수 하실분: 신청바랍니다.
2. 사목위원 피직: 1월 9일-1월 10일(수류)
3. 침소 봉사: 4구역 3반, 4반.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오늘은 주의 공헌 대축일입니다. (주교님미사집전, 미사 후 사목
회 신년 교례회)

1. 금주: ①울뜨레야(공식미사 후)
②제축극락라형제회(후1시30분)
2. 성체강복 및 조배: 7일(목) 오전10시.
3. 초등부 복사단 교육: 7일(목) 오전9시~후5시, 가톨릭센터.
4. 유아세례: 9일(토) 오후3시-8일까지 신청바람.
5. 차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2시)
③사목회(후8시)
6. 성모회 간부개편: 회장-박태연(말다) 부회장-이정숙(마리
아) 총무-이영주(리더아) 서기-방길근(율리안나)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상 근

1. 예비자 모집기간: 17일까지 L.M단원 1인1도.
2. 중·고생 첫영성체 교리: 4일~19일 매일 후4시~6시.
3. M.B.W: 사목회임원 및 단재장 4일~6일.
4. 꾸르실로 남성43차 강습회: 7일~10일 오부군, 박종수 형제.
5. 초등부 복사단 전례교육: 7일 전9시~후5시.
6. 회의: 제대회-8일 후3시, 부녀회-6일 어머니미사 후.
7. 가정방문일정: 17구역1반-5일 후2시30분(신일), 17구역2반
-6일 후2시30분, 13구역1반-7일 전9시, 13구역2반-후2시30
분(극동 가동), 13구역3반-8일 전9시(극동 나동)
8. 구역 반회장 연수회: 5일 전10시30분 반미사 신청.
9. 연중 의무금 미신청자: 사무실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속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 사목회: 오늘 오후7시.
2. 구역장월례회: 5일(화) 오후8시.
3. 성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4. 교무금 수입을 부탁드립니다.
5. 각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사오신 가정은 교적정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전례: 정 걸, 독서·봉헌: 형광임, 윤장호.
차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 김 강, 정 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실

※ 새해에는 신자가정에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모임안내: ①푸리아: 공식미사 후.
②여성분과회: 8(금)10시미사 후.
2. 봉성체: 7(목)오후2시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금년도 교무금 수입은 자진하여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차주모임: 울뜨레야, 빈첸시오회, 자모, 성모, 성심회.
금주전례: 해설-김홍두, 독서-①유인성 ②김연수
봉헌안내-최규화 부부, 김상권 부부.
차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김용신 ②정영호
봉헌안내-황인용 부부, 이준영 부부.